

전라남도 청소년의 약물남용 인식 및 태도 조사

박종선¹*, 김은엽²

¹목포과학대학 보건행정과, ²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Attitude and Recognition to Drug Abuse in Adolescent in Jeollanam-do

Chong-Sun Park¹*, Eun-Yeob Kim²

¹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Mokpo Science College University

²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adolescent understanding of and attitude towards unintentional drug use were investigated. 22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nam-do Province were selected randomly and a survey was carried out. 489 students (46.9%) replied that they had received training on drug prevention and 553 (53.1%) said they never received training about drug prevention. That does one or two drugs with curiosity, thinks that is bad($p=0.002$), and drug using thought that does not become the help in stress($p<0.001$). With regards to the question on whether they would use drugs if suggested by friends, 88.7% answered they would decline the offer. 91.4% indicated they will participate if there is training about drug misuse in the future. 91.0% replied that this training about drug misuse was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be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and provide continuous training and campaign to help them to acquire correct habits to maintain good health and in doing so; help them to establish a healthy foundation for adulthood.

Key Words : Drug Abuse, Drug Prevention, Attitude, Recognition

I. 서론

청소년기는 단순히 아동과 어른의 중간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 과도기적인 발달과정을 보이는 시기로, 사회적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기로 변화와 요구에 도전하고 순응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시기이다[1]. 이시기는 자아의 성숙과 인격적 성숙이 미숙하여 방황과 고민도 많으며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시기이다[2].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성숙 시기로 변화와 적응을 위한 혼란과 갈등으로 힘든 시기로 자기 통제와 조절 능력이 약한 시기이며, 빠른 신체적, 성적 성장과 발육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방황과 이탈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3].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심리적 불안과 초조가 증가하는 시기로 비치료적 약물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4][5]. 또한, 청소년기의 음주 및 흡연은 신체 및 정서 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성인 이후까지도 많은 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 사용에 대한 관계가 개인의 건강상태, 스트레스, 가정환경, 부모자녀관계, 학교, 친구 등의 요인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5], 현대의 청소년들은 핵가족화에 따른 대화의 부족, 부모들의 이혼에 따른 결손 가정의 증가에 따른 방황, 그 외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치료적 약물에 노출 되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7][8]. 우리나라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50.8%, 학교생활 만족도는 34.5%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가 높다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치료적 약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9][10].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 경우 국외는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홍보로 청소년 약물남용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는 되고 있으나, 심각한 약물남용 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11].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학생의 약물남용은 증가추세라 보고되었다[12]. 이처럼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건강에 해를 주는 위협적 행위는 의도적으로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시기까지 질병이나 사망,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음주, 흡연, 약물사용, 불건전한 건강행위 등을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다[13].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비의도적 약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의 효과 및 적절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연구시 활용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재학생 초등학생 4·6학년, 중학생 1·3학년, 고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대상은 1,042명으로 남자는 489명 46.9%, 여자는 553명 53.1%

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8월 1일부터 12월 10일 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1,060부를 배부하여 내용이 불충분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1,042부의 유효설문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의 측정도구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는 자가 기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문항 성별, 연령 문항과 약물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약물 행태, 습관, 지식 등을 16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변인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Cronbach's alpha 검증결과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 전 21 문항은 0.771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 후 21 문항은 0.752로 나타났다. 약물남용 예방 교육 10문항은 0.8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의 용어가 술, 담배를 포함하는 내용이며, 흡입제의 용어도 본드나 가스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방법은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program ver 17.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조사하였으며,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전 인식 및 태도를 리커트 5점(5 Likert point) 척도로 조사하였다. 과거 약물남용에 대한 사전 교육 유무에 따른 인식 및 태도를 독립표본 검정(Independent t-test)로 조사하였으며, 약물남용 교육 실시 전후 비교를 짝진 표본 검정(Paired t-test)

로 조사하였다.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행태, 약물남용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자는 489명 46.9%, 여자는 553명 53.1%로 전체 연구대상자 1,04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력별 연구대상자수는 초등학교 798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36명이었다. 재학학력별 평균 연령은 초등학생은 11세, 중학생은 14세, 고등학생은 17세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460명 44.1%는 약물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582명 55.9%는 약물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약물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수(명)	%
성별		
남자	489	46.9
여자	553	53.1
연령(세)*		
초등학교	11.32±1.35	-
중학교	14.77±0.82	
고등학교	17.78±0.83	
재학학력		
초등학교	798	76.5
중학교	208	20.0
고등학교	36	3.5
지역		
전라남도 동북부지역	529	50.8
전라남도 서남부지역	513	49.2
약물남용교육		
예	460	44.1
아니오	582	55.9

* 평균±표준편차

<표 2> 약물에 대한 교육 전 지식 및 태도

문항		빈도수(명)	%	응답자수(명)
약물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	확실히 그렇다	881	89.3	989/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48	4.9	
	그저 그렇다	23	2.2	
	대체로 그렇지 않다	8	0.8	
	절대로 그렇지 않다	29	2.8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두 번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확실히 그렇다	39	4.0	986/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68	6.9	
	그저 그렇다	72	7.3	
	대체로 그렇지 않다	92	9.2	
	절대로 그렇지 않다	715	72.6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확실히 그렇다	89	9.1	978/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41	4.2	
	그저 그렇다	117	12.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2	10.4	
	절대로 그렇지 않다	629	64.3	
약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그렇다	134	13.8	973/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78	8.0	
	그저 그렇다	144	14.8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6	10.9	
	절대로 그렇지 않다	511	52.5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지면 약간의 후유증은 무시해도 된다.	확실히 그렇다	34	3.5	974/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23	2.4	
	그저 그렇다	78	8.0	
	대체로 그렇지 않다	90	9.2	
	절대로 그렇지 않다	749	76.9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두번쯤 약물을 사용해 보고 싶다	확실히 그렇다	26	2.7	973/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29	3.0	
	그저 그렇다	71	7.3	
	대체로 그렇지 않다	66	6.8	
	절대로 그렇지 않다	781	80.2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다.	확실히 그렇다	90	9.2	977/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48	4.9	
	그저 그렇다	101	10.3	
	대체로 그렇지 않다	99	10.1	
	절대로 그렇지 않다	639	65.5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확실히 그렇다	63	6.4	977/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68	7.0	
	그저 그렇다	124	12.7	
	대체로 그렇지 않다	83	8.5	
	절대로 그렇지 않다	639	65.4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맛있는 사람이다.	확실히 그렇다	20	2.1	975/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19	1.9	
	그저 그렇다	47	4.8	
	대체로 그렇지 않다	62	6.4	
	절대로 그렇지 않다	827	84.8	

(계속-)

<표 2> 약물에 대한 교육 전 지식 및 태도(계속)

문항	빈도수(명)	%	응답자수(명)	
이성 친구에게 약물을 먹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확실히 그렇다	28	2.9	976/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23	2.4	
	그저 그렇다	55	5.6	
	대체로 그렇지 않다	47	4.8	
	절대로 그렇지 않다	823	84.3	
시험기간이나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확실히 그렇다	42	4.3	975/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28	2.9	
	그저 그렇다	75	7.7	
	대체로 그렇지 않다	77	7.9	
	절대로 그렇지 않다	753	77.2	
흡입제는 중독되면 판단장애를 일으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	확실히 그렇다	522	53.6	974/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122	12.5	
	그저 그렇다	97	1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40	4.1	
	절대로 그렇지 않다	193	19.8	
수은 위염과 영양장애를 일으키며 중독 되면 간경화, 뇌손상 등 각종장기를 손상시킨다.	확실히 그렇다	594	60.9	975/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127	13.0	
	그저 그렇다	102	10.5	
	대체로 그렇지 않다	31	3.2	
	절대로 그렇지 않다	121	12.4	
담배는 피울수록 흡연량이 늘어난다.	확실히 그렇다	658	67.6	974/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103	10.6	
	그저 그렇다	86	8.8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	2.7	
	절대로 그렇지 않다	101	10.3	
담배는 폐암, 구강암, 후두암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확실히 그렇다	700	71.8	976/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79	8.1	
	그저 그렇다	90	9.2	
	대체로 그렇지 않다	15	1.5	
	절대로 그렇지 않다	92	9.4	
술을 마시다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확실히 그렇다	474	48.7	974/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117	12.0	
	그저 그렇다	166	17.0	
	대체로 그렇지 않다	51	5.2	
	절대로 그렇지 않다	166	17.1	
담배는 혈압상승, 호흡증진 등을 일으킨다.	확실히 그렇다	641	65.7	976/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117	12.0	
	그저 그렇다	95	9.7	
	대체로 그렇지 않다	24	2.5	
	절대로 그렇지 않다	99	10.1	
술은 마실수록 음주량이 늘어난다.	확실히 그렇다	576	59.3	971/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100	10.3	
	그저 그렇다	89	9.2	
	대체로 그렇지 않다	27	2.8	
	절대로 그렇지 않다	179	18.4	

(계속-)

<표 2> 약물에 대한 교육 전 지식 및 태도(계속)

문항		빈도수(명)	%	응답자수(명)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그렇다	131	13.4	974/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106	10.9	
	그저 그렇다	177	18.2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2	13.6	
	절대로 그렇지 않다	428	43.9	
약물의 값이 싸다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확실히 그렇다	39	4.0	973/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19	2.0	
	그저 그렇다	62	6.4	
	대체로 그렇지 않다	75	7.6	
	절대로 그렇지 않다	778	80.0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맛있는 사람이다.	확실히 그렇다	20	2.1	975/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19	1.9	
	그저 그렇다	47	4.8	
	대체로 그렇지 않다	62	6.4	
	절대로 그렇지 않다	827	84.8	
술, 담배, 흡입제(보드, 가스) 등은 중독성이 없다.	확실히 그렇다	135	13.9	972/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33	3.4	
	그저 그렇다	66	6.8	
	대체로 그렇지 않다	45	4.6	
	절대로 그렇지 않다	693	71.3	
흡입제는 중독되면 판단장애를 일으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	확실히 그렇다	522	53.6	974/1,042
	어느 정도 그런편이다	122	12.5	
	그저 그렇다	97	1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40	4.1	
	절대로 그렇지 않다	193	19.8	

* 전체 대상자 1,042명중 응답자 표시

2. 약물에 대한 교육전 인식 및 태도

약물에 대한 교육전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약물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고 94.2%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약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81.8%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지면 약간의 후유증은 무시해도 된다고 5.9%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73.9%가 생각하고 있었으며, 약물의 값이 싸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고 6.0%가 응답하였다. 술, 담배, 흡입제 등은 중독성이 없다고 17.3%가 응답하였다. 흡입제는 중독되면 판단장애를 일으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 사망하지는 않는다고 23.9%가 응답하였다. 시험기간이나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7.2%가 응답하였다. 담배는 피울수록 흡연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13.0%가 응답하였다. 담배는 혈압상승, 호흡증진 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12.6%가 응답하였다. 술을 마시다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22.3%가 응답하였다.

3. 과거 약물예방 교육경험에 따른 인식 및 태도

과거 약물예방 교육 경험에 따른 인식 및 태도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과거 약물예방 교육 경험에 따른 인식 및 태도

문항	교육유무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약물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	예	1.20	0.702	0.245
	아니오	1.26	0.857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두번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예	4.29	1.227	0.007
	아니오	4.48	1.039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예	4.20	1.235	0.513
	아니오	4.14	1.371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다	예	4.08	1.345	0.038
	아니오	4.25	1.304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예	4.13	1.268	0.145
	아니오	4.25	1.264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다	예	4.70	.766	0.880
	아니오	4.70	.858	
약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	3.79	1.474	0.735
	아니오	3.82	1.490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	3.66	1.402	0.610
	아니오	3.62	1.508	
약물의 값이 싸다면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예	4.54	1.013	0.301
	아니오	4.61	.963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약간의 후유증은 무시해도 된다	예	4.51	.995	0.401
	아니오	4.56	.977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두번쯤 약물을 사용해 보고 싶다	예	4.61	.911	0.627
	아니오	4.58	.967	
이성 친구에게 약물을 먹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예	4.68	.870	0.497
	아니오	4.64	.938	
시험기간이나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예	4.51	1.039	0.964
	아니오	4.51	1.052	
흡입제는 중독되면 판단장애를 일으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	예	2.21	1.567	0.596
	아니오	2.26	1.609	
술, 담배, 흡입제 등은 중독성이 없다	예	4.26	1.383	0.062
	아니오	4.08	1.522	
술은 마실수록 음주량이 늘어난다	예	2.06	1.565	0.420
	아니오	2.14	1.564	
수은은 위염과 영양장애를 일으키며 중독되면 간경화, 뇌손상 등 각종 장기를 손상시킨다	예	1.83	1.327	0.055
	아니오	2.01	1.449	
술을 마시다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예	2.24	1.468	0.277
	아니오	2.35	1.561	
담배는 피울수록 흡연량이 늘어난다	예	1.66	1.262	0.018
	아니오	1.87	1.368	
담배는 혈압상승, 호흡중진 등을 일으킨다	예	1.69	1.227	0.025
	아니오	1.88	1.373	
담배는 폐암, 구강암, 후두암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예	1.64	1.243	0.311
	아니오	1.72	1.298	

* 유의수준 p<0.05

단순한 호기심으로 1-2회 정도 약물(술, 담배 포함)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 조사한 결과 약물 예방 교육을 받았던 그룹은 4.29±1.22,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은 4.48±1.03으로 나타났다(p=0.007).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사전 약물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은 4.08±1.34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 4.25±1.30으로 나타났다

(p =0.038). 담배는 피울수록 흡연량이 늘어나는지 조사한 결과 사전 교육을 받은 그룹이 1.66±1.26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 1.87±1.36로 나타났다(p=0.018). 담배는 혈압상승, 호흡증진 등을 일으킬 수 있는가 조사한 결과 사전 교육을 받은 그룹이 1.69±1.22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 1.88±1.37로 나타났다(p=0.025).

<표 4> 약물예방 교육 전후 인식 및 태도

문항	교육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약물(술, 담배 포함)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	교육전	1.24	.793	.138
	교육후	1.29	.953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두 번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교육전	4.39	1.129	.002
	교육후	4.52	1.115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교육전	4.18	1.303	.000
	교육후	4.46	1.141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하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다.	교육전	4.17	1.328	.000
	교육후	4.42	1.184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교육전	4.20	1.257	.000
	교육후	4.49	1.090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하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다.	교육전	4.70	.813	.185
	교육후	4.74	.825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한다고 해서 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전	3.80	1.479	.000
	교육후	4.24	1.312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하는 것과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육전	3.63	1.462	.000
	교육후	4.19	1.318	
약물(술, 담배 포함)의 값이 싸다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교육전	4.58	.972	.000
	교육후	4.70	.861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지면 약간의 후유증은 무시해도 된다.	교육전	4.55	.958	.000
	교육후	4.67	.872	
기회가 주어지면 한두 번쯤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해 보고 싶다.	교육전	4.59	.935	.000
	교육후	4.72	.808	
이성 친구에게 약물(술, 담배 포함)을 먹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교육전	4.67	.882	.330
	교육후	4.70	.894	
시험기간이나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교육전	4.50	1.052	.943
	교육후	4.51	1.137	
흡입제는 중독되면 판단장애를 일으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	교육전	2.25	1.591	.058
	교육후	2.13	1.648	
술, 담배, 흡입제(본드, 가스) 등은 중독성이 없다.	교육전	4.18	1.453	.600
	교육후	4.15	1.524	

* 유의수준 p<0.05

4. 약물예방 교육 전후 인식 및 태도

약물예방 교육 전후 인식 및 태도 결과는 <표 4>와 같다. 리커트 5점(5 Likert point) 척도로 교육전후 인식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두 번 약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p=0.002$),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으며($p<0.001$),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특히 약물예방 교육 이후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폐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으며($p<0.001$),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p<0.001$). 또한,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전환을 하는 것에 따른 후유증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p<0.001$).

5. 약물예방 교육 이후 인식 및 태도

약물예방 교육 이후 인식 및 태도 결과는 <표

5>와 같다. 약물예방 교육이후 약물 오남용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87.9%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건강을 해치는 약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92.9%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약물 오남용은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94.6%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6. 약물예방 교육의 효과

약물예방 교육의 효과 결과는 <표 6>와 같다. 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 91.8%가 응답하였다. 약물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도 잘 이해되었다고 93.0%가 응답하였다. 약물예방 교육 내용도 적절하였다고 91.8%가 응답하였다. 약물예방 교육 시간이 적절하였다고 89.5%가 응답하였다. 전체적인 약물예방 교육은 만족하였다고 91.0%가 응답하였다.

<표 5> 약물예방 교육 이후 인식 및 태도

문항	빈도수(명)	%	
약물 오남용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가?	확실히 그렇다	739	72.5
	그렇다	157	15.4
	보통이다	79	7.7
	그렇지 않다	12	1.2
	절대로 그렇지 않다	33	3.2
몸에 해로운 약물에는 술, 담배, 흡입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확실히 그렇다	850	83.0
	그렇다	101	9.9
	보통이다	43	4.2
	그렇지 않다	14	1.4
	절대로 그렇지 않다	16	1.6
약물은 몸에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확실히 그렇다	921	90.1
	그렇다	46	4.5
	보통이다	32	3.1
	그렇지 않다	5	0.5
	절대로 그렇지 않다	18	1.8

<표 6> 약물예방 교육의 효과 및 적절성

문항		빈도수(명)	%
약물 예방 교육 내용은 적절하였는가?	확실히 그렇다	845	82.7
	그렇다	93	9.1
	보통이다	52	5.1
	그렇지 않다	7	0.7
	절대로 그렇지 않다	25	2.4
약물예방 교육 시간은 적절 하였는가?	확실히 그렇다	819	80.0
	그렇다	97	9.5
	보통이다	74	7.2
	그렇지 않다	16	1.6
	절대로 그렇지 않다	18	1.7
본 약물예방 교육은 전체적으로 만족하였는가?	확실히 그렇다	829	81.0
	그렇다	102	10.0
	보통이다	63	6.2
	그렇지 않다	13	1.3
	절대로 그렇지 않다	16	1.6

<표 7> 약물 예방 교육 이후 행동 및 태도

문항		빈도수(명)	%
만약 친구가 약물사용을 권유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중히 거절	904	88.7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한다	28	2.7
	잘 모르겠다	68	6.7
	기타	19	1.9
앞으로 약물 예방교육이 있다면 참여 하시겠습니까	적극 참여	594	58.3
	참여	337	33.1
	참여하지 않겠다	51	5.0
	친구들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37	3.6

7. 약물예방 교육 이후 행동 및 태도

약물예방 교육 이후 행동 및 태도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친구가 약물사용을 권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본 결과 88.7%가 정중히 거절한다고 하였으나, 6.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약물(술, 담배 포함) 예방교육이 있다면 참여하겠는가 물어본 결과 91.4%가 참여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청소년의 약물남용 과정은 부모의 경험으로 시작하여 약물을 혼자 또는 또래들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14].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이 47.1%로 높게 조사되었는데[15], 이는 청소년의 음주행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약물은 몸에 해롭고 좋지 않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영은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적 목적 이

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과거 경험한 명수가 전체 246명중 22명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본다면 [10], 청소년들은 약물남용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약물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의 태도와 상관성을 살펴보면, 이영은[10] 연구에서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와 상관성이 있는 요인으로 흡연경험, 우울경험, 비행경험, 약물교육 받은 경험, 자신에 대한 만족정도,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는 정도, 부모님과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정도, 선생님과의 관계라고 보고한바 있다. 이처럼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와 상관성이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선도한다면 약물남용에 노출되는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약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전체 246명 중 82명 33.3%가 응답하였으며, 학교 외에서 약물교육 받은 경험은 전체 246명 중 59명 23.9%로 더 낮게 나타났다[10]. 본 연구 결과에서도 460명인 44.1%가 학교와 학교 외에서의 약물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약물교육을 실시한다면 약물남용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학업, 시험, 입시, 친구관계, 자아정체감 형성 등에 있어서 일생을 두고 볼 때 불안과 혼란이 많이 존재하는 시기로 기분의 기복이 심하며, 우울반응도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16]. 이러한 문제나 여건들로 인하여 약물남용에 대한 비수용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약물남용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학교생활이 불만족하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불만족한 청소년들의 경우 약물남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17][18].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해줄 남용약물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또한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환경인 학교와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현재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은 약물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지 못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사전 약물남용 교육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본 결과 약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약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약물에 대한 올바르게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해주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봐도 약물남용 교육 전후 모두 단순한 호기심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p=0.002$),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처럼 청소년들은 약물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남용약물 교육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알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회가 주어져도 약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타나 교육을 통하여 약물에 노출 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약물남용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교육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발휘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관련 기관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건강 관련 행위 습득을 통해 성인기 건강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정명희(2006),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향후 방향,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Vol.(9);79-100.
2. Pamela JB, William RB(1998), Depression in the Adolescent Patient, Adolesc Med: State of the

- Art Rev, Vol.9;351-362.
3. 김윤진(2005), 청소년 건강관리, 가정의학회지, Vol.26(4);545-550.
 4. 조태현, 남철현(2000), 대입 재수생 및 편입준비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17(2);57-74.
 5. 김희영(2007),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관한 예측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Vol.18(1);136-145.
 6. McGue, M., Lacono, W., Legrand, L., Moalhe, S., and Elkins, I.(2001),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ge at first drink, Parts I and II,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Vol.1;1156-1173.
 7. 이현정, 홍성도, 정유숙, 박현주, 최상섭(2001), 발병 시기에 따른 청소년 약물남용의 특성, 신경정신의학, Vol.40(6);1194-1203.
 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8),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결과; 마약 없는 밝은 사회, p.13.
 9.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10. 이영은, 박혜선, 강양희(2007), 부산지역 여중생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Vol.11(2);162-172.
 11. 미국 마약통제정책국(2004), USA ONDCP Report.
 12. 검찰청(2006), 마약류 범죄백서.
 13. 최진, 김미예(2009), 고등학교 청소년의 건강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Vol.15(2);182-189.
 14. Johnson, Vernon(1990),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hemical Dependence: Complete Guide for Families, Minneapolis: Johnson Institute.
 15. 정슬기(2004), 청소년 또래요인과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리더십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경성대학, Vol.23(2);305-323.
 16. 박성혜(1990),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또래집단 활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7. 김영혜, 이화자, 정향미(2001), 일부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및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Vol.5(1);109-122.
 18. 신태용(2002), 전라북도 고등학생 약물 오남용 실태, 마약 청소년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대책 심포지움,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접수일자 7월 5일
심사일자 9월 15일
게재확정일자 12월 20일